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지역 교육계·학생·학부모 반응

“수능 내 점수 알 수 있어 좋긴 한데...”

탈많은 등급제 폐지 고2 대부분 ‘환영’ 시험과목 축소로 사교육비 늘까 ‘우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능등급제 폐지, 수능 과목수 축소, 대입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중·고·대학과 교육당국, 학부모·학생들의 반응은 찬반 양분으로 엇갈렸다.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은 변별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능등급제 폐지 등 개선안에 대해 환영분위기가 우세했으나 일각에서는 등급제 무력화, 사교육비 증가 등을 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수능등급제에 대해 순차적 폐지를 주장해왔던 전남대 등 지방대학들은 대입 제도 급변에 따른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당장 올해 수능을 치르는 현재 고2 학년들은 수능등급제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본인의 점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안도하고 있다.

급고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들 반기는 분위기”라며 “문제 하나도 등급제가 바뀔 수 있다는 데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일고 2학년 부장 이태건 교사는 “요행수가 많은 등급제의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점수를 공개했을 경우 등급제를 하든, 점수를 반영하던 대학들이 알아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이 적어

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동아여고 김종재 교사는 “지난해의 경우 수능을 약화하고 내신을 강화하려다 눈송까지 강화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보였으나 이번 없어질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며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적어지면 눈송 과외로 인한 금전적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광주·전남 등 지방학생들에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등급제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등급제는 내신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7개이던 과목수를 5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 광주 대성학원 우부남 진학실장은 “과목수 축소는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것”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목수에 그다지 관계없지만, 중상위권은 ‘몇 과목 안 된다’는 생각에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은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문승주 학생지원처장은 “오랫동안 연구해 개발한 제도(등급제)를 단 한 번 실시한 뒤 바로 바꾼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대입제도보다 본질적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22일 겨울방학 자율학습을 받고 있던 동아여고 2학년 예비수험생들이 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 소식을 접하고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조태훈 입학관리본부장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하면 대입 수험 등 여러 경로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형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의견 수렴 등 여러 경로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족보가 뭐길래...

문중 족보 올리려 직급 변조 퇴직공무원 징역형

문중 족보에 올리기 위해 표창장에 있는 자신의 공무원 직급을 변조한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현 판사는 22일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 등을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나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문중 족보편찬위원회의 요구로 표창장을 촬영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

서들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5년 9월께 문중 족보편찬위원회에 표창장을

사진 촬영해 제출하면서 자신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보’ 대신 ‘사무관’이라고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족보 제작을 의뢰받은 모 인쇄소에 사진을 제출해 변조한 내용이 족보에 실리게 했으나 분쟁을 벌이고 있던 다른 문중원이 이 사실을 문제 삼는 바람에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립국악단장 채용 비리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시립국악관현악단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이모(47) 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단원 최모(여·30)씨를 배임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장은 지난 2006년 3월22일 단원 채용과정에서 최씨를 상임단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최씨의 남편(31)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세 장을 건넨다는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8일 이 단장을 비롯, 지난 2004년 이후 신규 채용된 단원 등 10여명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계좌 130개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단장은 경찰에서 “대가성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다. 피리 전공자인

최씨가 ‘아쟁을 배우고 싶다’며 악기 구입을 의뢰해 먼저 이를 사주고 아쟁 구입비로 3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씨도 “악기 대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전문가들에게 최씨의 집에서 압수한 아쟁을 감정한 결과 전문 연주자가 상당 기간 연주하고 수리한 흔적이 있는 데다 최씨가 아쟁을 쫄지 모르는 점으로 미뤄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단원 이모(여·41)씨가 지난해 11월27일 ‘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1천만~2천만원을 건내야 한다’는 글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채용했다는 단원들의 이름을 광주시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란에 올리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MT중 학생 사망, 교수도 책임”

광주지법 판결

대학 수련회(MT) 중 음주 후 폭행으로 인한 학생 사망사고는 지도 교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김성주 판사는 22일 학교법인 H학원이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학교법인 측에 8천6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련회 지도·감독을 위해 참가한 교수들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하지만 참석 교수들은 수련회 장소를 떠나거나, 남아 있던 교수들도 술 취한 학생들의 생활

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등 학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교수들의 사용자인 H학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술진 이씨가 술에 취해 선배에게 대들고 싸우는 등 상황을 유발한 일부 잘못이 있다”며 학교 측의 책임비율을 30%(8천600여만원)로 제한했다.

H학원 산하 D대학 건설토목과 1학년이던 이씨는 지난 2006년 3월 22일 화순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MT를 갔다가 다음날 새벽 숙소에서 선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다른 선배에게 맞으면서 땅 바다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 침몰 화물선 과적 출항 했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여수시 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14명이 사망·실종한 화물선 운반선 이스턴브라이트 호는 과적 상태로 출항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22일 “이스턴브라이트 호가 지난해 12월 25일 광양항을 출항하기 전 작성된 검량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적재 화물은 2천744t으로 적정 적재량(2천588t)을 156t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경은 화물 과적이 당시 풍랑주의

보가 발표되기 직전의 해상 기상 악화와 맞물려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급작스런 조타기 조작 등으로 선체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환절기 대비노기과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062) 233-5119
장수 신장요관비뇨기과 전문 병원 3층
5층 500호 5층-500호

나원침 (7416) 김중두



다용도 건축·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위·아래층 이웃 소음 문제 주먹다짐

○아파트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끼리 층간 소음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이다 결국은 모두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2일 이웃 간에 발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김모(여·47), 지모(여·29)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J아파트 107동 자신의 집 위층에서 ‘쿵쿵’ 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나는 등 소음이 커지자 쫓아가 항의하던 중 지씨와 서로 주먹질을 한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몇 번이나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자 화가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 법성포 **족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법성포영광 굴러오기 특별한 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고래굴이 오레토로 자숙한 것입니다.

₩ 250,000	₩ 150,000	₩ 100,000
₩ 80,000	₩ 70,000	₩ 50,000

법성포상굴비 061)356-7600